

#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임경민<sup>1</sup>, 박정훈<sup>2\*</sup>

<sup>1</sup>동주대학교 간호학과, <sup>2</sup>영산대학교 의료경영학과

##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Kyoung-Min Lim<sup>1</sup>, Jung-Hoon Park<sup>2\*</sup>

<sup>1</sup>Department of Nursing, Dong ju College

<sup>2</sup>Department of Healthcare Management, Youngsan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의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B광역시, U광역시, G시 소재 8개 대학의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 중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 중 부적절한 응답을 제외한 205명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학년, 건강상태, 대인관계, 희망진로, 학교성적, 가정생활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전공만족도가 높고,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회귀분석 결과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학년들이 간호대학생으로의 전공에 대한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과내외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입학시부터 지도교수나 교과담당교수진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이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For this investigation, data were collected from July 22 to August 15, 2017. The collection was made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nursing students in their 1st or 2nd year at one of eight colleges or universities located in B Metropolitan City, U Metropolitan City and G City. Participants were informed of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it. Of all the questionnaire sheets collected after the survey, those filled in by 205 participants were finally used for analysis here, with those by others excluded because they were considered to have been inappropriately filled out.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Nursing students surveyed in the stud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with respect to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depending on grade, health status, interpersonal relationships, desired career, academic achievement and family life level. Moreover, nursing students who had higher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and more interactions with their professors were likely to adjust better to university life. In addition,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major had the biggest effect on their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aken together, the results suggest that nursing students in their 1st or 2nd year of school should continue to be provided with curricular or extracurricular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that they should be given opportunities for communication with or counseling from their advisors or other nursing professors from the onset of university life.

**Keywords** :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Major Satisfaction, Nursing Students,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Regression Analysis

---

\*Corresponding Author : Jung-Hoon Park(Youngsan Univ.)

Tel: +82-10-9399-3636 email: nbusisi@nate.com

Received July 20, 2018

Revised (1st August 7, 2018, 2nd August 20, 2018)

Accepted September 7, 2018

Published September 30,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여러 가지 기대와 환상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지만 새로운 대학환경은 학생들에게 자율성과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스스로 경험하게 한다. 결국 대학 입학만이 삶의 유일한 목표이었던 수험생들과는 달리, 대학생활이 시작되면서 복잡하고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1]. 타 학과의 학생들에 비해 간호학 전공 학생들은 전문적 지식 습득을 위한 과중한 학업 이외에도 주요 교육내용으로 현장실습이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습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생들과는 다르게 환자를 간호하는데 큰 책임감을 느끼고 경험과 지식의 부족, 엄한 행동 규범, 낯설고 다루기 힘든 환자에 대한 부담, 현장실습지도자에 의한 평가, 실습기간 중의 과도한 과제 및 바쁜 일정 등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서[2,3,4], 스트레스와 우울이 높아 질 수 있고[5], 학년이 높아지면서 대학생활적응이 더 어려워지므로[6] 전문직 간호사로 성장하는 근간이 되는 현장실습 전 단계에 해당하는 1, 2학년 시기부터 대학생활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이들이 어려움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7]. 간호학 전공 학생들은 적응을 잘하지 못할 경우 학업과정 중 또는 졸업 후에도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으며, 신규간호사로 일하면서 현실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문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중도 포기하게 된다[8]. 즉, 간호대학생들이 학과 및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임상실습에 접하게 된다면 이들은 앞으로 대학생활적응에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상태를 확인하고 이들의 적응을 위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9].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대학생들이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 관계,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10].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을 잘 적응함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하고, 인간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본적인 소양 및 전공 관련 전문 지식을 습득하여 졸업 후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임상 현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게 된다[6]. 따라서 대학생활의 어려움

을 극복하고 이에 적응하는 것은 간호대학생에게 현재의 과업달성은 물론 미래의 간호사로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생활적응은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관문이며 생활전반적인 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므로 보다 나은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개인적, 사회적 자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급격한 변화에 대한 어려움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11].

교육현장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수업에서 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의 삶 속에서도 잘 적응하고 보다 높은 성취도와 내재동기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12],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선택한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한다. 전공만족도란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과 비교하여 현재 자신이 소속한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이다. 그러나 다른 전공에 비해 간호학과는 비교적 높은 취업률 때문에 전공과정에 대한 고민 없이 간호학과를 지원하는 현 상황에서 적성의 불일치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지 못하는 간호대학생은 입학 후에 대학생활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으며[13], 전공 만족도가 낮아지면 학업성취도도 낮아지게 되어 결국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우며, 전공에 대한 불만족은 간호대학생들이 추후 간호사가 되었을 때 직무수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신념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14]. 또한 Kim 등[15]은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수-학생상호작용이라고 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은 교수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인지적 이해의 기반위에 교육적 상황에서 학생들의 심리적, 행동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교수와 학생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의미한다. 교수의 행동은 학생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하므로, 교수가 일방적으로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교육적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16]. 대학생들이 교수에게서 느끼는 친밀감을 높게 평가 할수록 그들의 전반적인 대학 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 신뢰의 측면 중에서 능력이라든지 성실성 보다는 교수들이 학생들과 얼마나 정서적으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문제인 친밀감이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17].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극복력, 교우관계, 진로태도성숙, 가족

기능[11], 전공만족도[9], 정서지능[8], 자기주도적 학습, 창의성[7], 자아탄력성[6], 임상실습스트레스, 대처방식[18], 전공 만족도와 심리적 요인[19] 등이 있었으나 전공 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며,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습을 앞둔 1.2학년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도울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다섯째, 대상자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 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B광역시, U광역시, G시 소재 8개 대학의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크기는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수준  $\alpha$ 는 .05, 검정력은 .80, 효과크기는 .25(medium)로 선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200명이었고 탈락률 10%를 고려하여 220부를 배부하여 210부를 회수하여 그 중 부

적절한 답을 한 경우를 제외한 205명을 분석하였다.

###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일반적 특성 9개 문항, 전공만족도 22문항, 교수-학생 상호작용 18문항, 대학생활 적응 60문항으로 총 10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2.3.1 전공만족도 측정도구

전공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Cho[19]와 Ha[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의 하위요인 즉 일반만족 7문항, 교과만족 6문항, 관계만족 4문항, 인식만족 5문항 총 2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ho[19]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전체신뢰도는 Cronbach's  $\alpha=.92$ , Ha[20]의 연구에서도 Cronbach's  $\alpha=.92$ 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41$ 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일반만족 .880, 교과만족 .840, 관계만족 .869, 인식만족 .926이었다.

#### 2.3.2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정도구

교수-학생 상호작용 측정도구는 Wubbels 등[16]의 교사-학생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Fisher[21]가 제작한 교사-학생관계척도(Questionnaire on Teacher Interaction)와 Chi 등[22]의 설문지를 수정, 보완한 Han[23]의 설문을 사용하였다. 교수-학생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 친밀감 9문항, 신뢰감 9문항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n[23]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친밀감 Cronbach's  $\alpha=.922$ , 신뢰감 .915였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4$ 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친밀감 .945, 신뢰감 .946이었다.

#### 2.3.3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

대학생활적응 측정도구는 Baker 등[24]이 개발한 도구를 Hyun[25]이 번안한 대학생활적응척도(SACQ: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를 기초로

Kang[26]이 재구성한 설문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 적응을 측정하기 위한 하위요인으로 학업적 적응 24문항, 사회적 적응 14문항, 개인-정서적 적응 13문항, 대학 환경에의 적응 9문항 총 6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Kang[26]의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는 학업적 적응 Cronbach's  $\alpha=.827$ , 사회적 적응 .883, 개인-정서적 적응 .797, 대학 환경에의 적응 .831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0$ 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 학업적 적응 .862, 사회적 적응 .801, 개인-정서적 적응 .812, 대학 환경에의 적응 .814이었다.

#### 2.4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본 연구에 자료 수집 기간은 2017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B광역시, U광역시, G시 소재 8개 대학의 간호학과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을 충분히 설명하고 응답의 비밀보장과 개인 정보는 절대로 노출되지 않을 것과 오직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하도록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 2.5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 1) 대상자의 제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의 차이는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및 Scheffe's-test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4)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자가 175명(85.4%), 남자가 30명(14.6%)이었고, 학년별 분포는 1학년이 131명(63.9%), 2학년 74명(36.1%)이었다. 종교가 있는 경우는 113명(55.1%), 종교가 없는 경우는 92명(44.9%)이었다. 건강상태는 건강함 107명(52.2%), 매우 건강함 50명(24.4%), 보통 38명(18.5%), 나쁨 10명(4.9%) 순이었다. 대인관계는 좋음 107명(52.2%), 매우 좋음 59명(28.8%), 보통 39명(19.0%) 순이었다. 지원 동기는 적성과 흥미 66명(32.2%), 부모나 주변 권유 42명(20.5%), 전문직 40명(19.5%), 취업률이 높아서 39명(19.0%), 고교성적 고려 13명(6.3%), 기타 5명(2.5%) 순이었다. 졸업 후 희망진로는 병원취업이 177명(8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간호직 공무원 19명(9.3%)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중위권(평균학점 B+)이 90명(4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상위권(평균학점 A) 44명(21.5%), 중하위권(평균학점 B) 40명(19.5%) 순이었다. 가정생활정도는 보통인 경우가 131명(63.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1].

####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학년별( $t=2.655, p=.009$ ), 건강상태( $F=9.874, p<.001$ ), 대인관계( $F=27.059, p<.001$ ), 희망진로( $F=2.990, p=.020$ ), 학교성적( $F=4.541, p=.002$ ), 가정생활 정도( $F=2.787, p=.04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매우 건강함으로 응답한 집단이 건강함, 보통, 나쁨으로 응답한 집단보다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에 따라서는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성적에 따라서는 상위권인 경우가 중위권, 중하위권, 하위권인 경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205)

Variables	Category	n	%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M±SD	t or F(p)/Scheffe
Gender	Female	175	85.4	3.22±0.41	-0.652(.519)
	Male	30	14.6	3.29±0.54	
Grade	1st	131	63.9	3.29±0.46	2.655(.009)
	2nd	74	36.1	3.13±0.37	
Religion	Yes	113	55.1	3.26±0.47	1.076(.283)
	No	92	44.9	3.19±0.39	
Health status	Very healthy <sup>a</sup>	50	24.4	3.46±0.45	9.874(.000)
	Healthy <sup>b</sup>	107	52.2	3.22±0.41	
	Moderate <sup>c</sup>	38	18.5	3.05±0.36	
	Unhealthy <sup>d</sup>	10	4.9	2.92±0.38	
Interpersonal relationship	Very good <sup>a</sup>	59	28.8	3.48±0.43	27.059(.000)
	Good <sup>b</sup>	107	52.2	3.21±0.36	
	Moderate <sup>c</sup>	39	19.0	2.90±0.39	
Motivation of admission	High school Score <sup>a</sup>	13	6.3	3.02±0.12	1.694(.138)
	Recommendation of parents or surroundings <sup>b</sup>	42	20.5	3.16±0.39	
	High employment guarantee <sup>c</sup>	39	19.0	3.18±0.35	
	Aptitude and interest <sup>d</sup>	66	32.2	3.31±0.46	
	Profession <sup>e</sup>	40	19.5	3.31±0.53	
	Others <sup>f</sup>	5	2.5	3.12±0.43	
Desired career	Employment in hospital	177	86.3	3.27±0.43	2.990(.020)
	Enrollment in graduate school	5	2.4	2.83±0.64	
	Health teacher	2	1.0	3.07±0.05	
	Aptitude and interest	2	1.0	3.05±0.12	
	Public health nurse	19	9.3	3.01±0.36	
Academic achievement	High(A <sup>+</sup> ) <sup>a</sup>	10	4.9	3.69±0.52	4.541(.002)
	High-middle(A) <sup>b</sup>	44	21.5	3.29±0.46	
	Middle(B <sup>+</sup> ) <sup>c</sup>	90	43.9	3.22±0.39	
	Middle-low(B) <sup>d</sup>	40	19.5	3.18±0.42	
	Low(≥C <sup>+</sup> ) <sup>e</sup>	21	10.2	3.03±0.38	
Family life level	Low	25	12.2	3.08±0.42	2.787(.042)
	Middle	131	63.9	3.22±0.42	
	High	34	16.6	3.30±0.42	
	Very high	15	7.3	3.46±0.52	

### 3.3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활적응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 생활 적응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점 3.89점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인식만족이 4.2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이 3.85점, 교과만족이 3.75점, 관계만족이 3.66점으로 가장 낮았다. 교

수-학생 상호작용 정도는 평점 3.85점으로 나타났으며 2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신뢰감이 4.03점으로 높았고, 친밀감이 3.68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평점 3.23점으로 나타났으며, 4개의 하위영역 중에서 대학 환경에의 적응이 3.54점으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적응이 3.40점, 학업적 적응이 3.12점, 개인-정서적 적응이 3.0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n=205)

Variables		Item	Minimum-Maximum	Mean±S.D	Total sum Mean±S.D
Major Satisfaction	Total	22	2.00-5.00	3.89±0.58	85.48±12.64
	General Satisfaction	7	2.00-5.00	3.85±0.64	26.94±4.46
	Curriculum Satisfaction	6	2.00-5.00	3.75±0.59	22.51±3.56
	Relation Satisfaction	4	1.00-5.00	3.66±0.71	14.65±2.83
	Acknowledge Satisfaction	5	1.00-5.00	4.28±0.68	21.38±3.38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Total	18	2.00-5.00	3.85±0.66	69.37±11.94
	Intimacy	9	2.00-5.00	3.68±0.72	33.13±6.50
	Confidence	9	1.00-5.00	4.03±0.68	36.24±6.15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Total	60	2.00-5.00	3.23±0.43	193.86±25.98
	Academic Adjustment	24	2.00-5.00	3.12±0.46	74.81±11.11
	Social Adjustment	14	2.00-5.00	3.40±0.49	47.59±6.85
	Personal-Emotional adjustment	13	1.00-5.00	3.04±0.58	39.57±7.58
	University Environment adjustment	9	2.00-5.00	3.54±0.65	31.89±5.86

3.4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 대학생 활적응 사이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 $r=.563, p<.001$ )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반만족과 대학생활 적응( $r=.587, p<.001$ )간, 교과만족과 대학생활 적응( $r=.577, p<.001$ )간, 관계만족과 대학생활 적응( $r=.481, p<.001$ )간, 인식

만족과 대학생활 적응( $r=.318, p<.001$ )간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생활 적응( $r=.505, p<.001$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친밀감과 대학생활 적응( $r=.524, p<.001$ )간, 신뢰감과 대학생활 적응( $r=.426, p<.001$ )간 모두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 major satisfaction,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n=205)

Variables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r	p
Major Satisfaction	.563	.000
General Satisfaction	.587	.000
Curriculum Satisfaction	.577	.000
Relation Satisfaction	.481	.000
Acknowledge Satisfaction	.318	.000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505	.000
Intimacy	.524	.000
Confidence	.426	.000

3.5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수들 중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던 , 전공만족도, 교수-학습 상호작용 그리고 제 특성 중 대학생활적응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학

년, 건강상태, 대인관계, 희망진로, 학과성적, 생활수준 정도를 가변수로 처리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제 특성 중에서는 대인관계(건강함)를 제외한 대인관계(매우건강함), 학년, 건강상태, 희망진로, 학과성적, 생활수준 정도는 대학생활적응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에 대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회귀분석의 공차한계값이 0.846~0.937의 범위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값은 1.000~1.138의 범위로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rubin Watson 값을 구한 결과 1.864로 나타나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54.433$ ,  $p<.001$ ), 모형의 수정된 결정계수( $R^2$ )는 .413으로 전체 설명력이 41.3%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에서 교과만족이 28.7%였으며, 대인관계 정도 추가시 35.7%, 교수-학생 친밀감 추가시 37.2%, 교수-학생 신뢰감 추가시 39.3 %, 전공만족도에서 일반만족 추가시 41.3%였다[Table 4].

Table 4.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adjustment to university life

(N=205)

Variables	B	SE	$\beta$	t	p	Adj. R <sup>2</sup>
Constant	62.397	7.368		8.468	.000	
Major Satisfaction(Curriculum Satisfaction)	.875	.485	.229	1.804	.073	.287
Interpersonal Relationship(Good)	-5.103	1.382	-.246	-3.694	.000	.357
Professor-Student Interaction(Intimacy)	.697	.213	.341	3.270	.001	.372
Professor-Student Interaction(Confidence)	-.688	.239	-.323	-2.876	.005	.393
Major Satisfaction(General Satisfaction)	.870	.349	.275	2.495	.014	.413
Adj. R <sup>2</sup> = .413., F=54.433, p<.001						

####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정도는 평점 3.89점( $\pm 0.58$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 1~4학년을 대상으로 한 Jang[27]의 연구에서 3.89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im 등[28]의 연구에서 3.90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간호학과를 특정하지 않고 4년제 일반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29]의 연구에서 3.59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원동기에서 보면 적성과 흥미가 있어서 지원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사료된다. 4개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인식만족이 4.2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만족이 3.85점, 교과만족이 3.75점, 관계만족이 3.66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계열의 1~2학년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1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학과 인지도에 대한 만족을 나타내는 인식만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간호대학생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으로서 간호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만족하

고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남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im 등[28]의 연구에서는 일반만족, 인식만족, 교과만족, 관계만족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대상자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남자간호대학생들은 진학동기가 본인의 의지로 입학한 경우가 훨씬 더 높고 전공선택시에도 많은 검토 후에 선택하였으므로 전공의 내용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전반적인 만족도인 일반만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교수-학생 상호작용 정도는 평점 3.8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2~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이용하여 연구한 Cho 등[30]의 연구에서 3.96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충청북도 중소도시에 위치한 4년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Kwon[31]의 연구에서 2.56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왔고, 우리나라 4년제 대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i[32]의 연구에서 6점 만점 3.04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도 높게 나왔다. 이는 타 학과에 비해 교수와 함께하는 실습교육이 더 많은 간호학과의 특성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평점 3.2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3년제 간호대학생 1~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Oh[33]의 연구에서 3.14점으로 나타난 결과와 Choi 등[34]의 연구에서 2.96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4년제 간호대학생 1~2학년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본 연구에 비해서 3년제 간호대학생 중 간호사 국가고시 등 학업부담 및 취업부담이 높은 3학년들이 Oh[33]의 연구에서는 14.8%, Choi 등[34]의 연구에서는 36.7%로 상당수 포함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Yang 등[35]의 연구에서는 3.34점으로 나타나 간호대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Yang 등[35]의 연구에서는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신입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시기이고 학업과 취업의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이므로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점수가 높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 정도는 학년별( $t=2.655, p=.009$ ), 건강상태( $F=9.874, p<.001$ ), 대인관계( $F=27.059, p<.001$ ), 희망진로( $F=2.990, p=.020$ ), 학교성적( $F=4.541, p=.002$ ), 가정생활 정도( $F=2.787, p=.042$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종교유무와 대학생활 적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Park 등[36]의 연구, 성별과 대학생활 적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Kim[37]과 Oh[33]의 연구, 지원동기와 대학생활 적응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Choi 등[3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는 2학년 보다 1학년이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 이는 타학년 보다 1학년이 높게 나타난 Kim[37]의 연구와 일치했다. 학업부담 및 취업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여서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하다고 스스로 인지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건강하다고 스스로 인지할수록, 대인관계능력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난 Sim 등[38]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리고 학교성적이 상위권일수록, 가정생활 정도가 여유가 있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 이는 가정형편이 넉넉하다고 인식한 경우가 어렵다고 인식한 경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고, 대학성적이 상이나 중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하라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다는 Kim[3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와 대학생활 적응( $r=.563, p<.001$ )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Oh[33] ( $r=.527, p<.001$ ), Park 등[36]의 연구( $r=.455, p<.01$ )와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Cho[39]의 연구( $r=.219, p<.01$ )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교수-학생 상호작용과 대학생활 적응( $r=.505, p<.001$ ) 간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도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김혜시 소재 2개의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Song 등[40]의 연구( $r=.48, p<.01$ )와, 지방소재 4년제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Nam 등[41]의 연구( $r=.483, p<.001$ )보다도 높았다. 따라서 학생들이 교수에게 친밀감과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에서 교과만족이 28.7%였으며, 대인관계 추가시 36.7%, 교수-학생 친밀감 추가시 37.2%, 교수-학생 신뢰감 추가시 39.3%, 전공만족도에서 일반만족 추가시 41.3%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 등[36]의 연구결과와 Cho[39]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대인관계가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Sim 등[38]과 Kim 등[1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들에서 하위요인별로 영향요인을 연구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지만 무용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Do[42]의 연구에서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위요인별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하위요인인 친밀감과 신뢰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 재학생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



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들이 앞으로 수행될 임상실습과 남은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 중재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전공만족도에서 교과만족과 일반만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교수-학생 상호작용에서 친밀감과 신뢰감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의 정도가 높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저학년일수록 교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고, 선-후배관계, 교우관계에 대한 친화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며, 교수와 학생간의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하는 다양한 교과내외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B광역시, U광역시, G시 소재 8개 대학의 간호학과 1, 2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에 추후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대학생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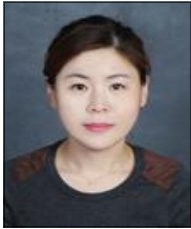
## References

- [1] H. J. Kwon,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and scholastic achievement with the university environment climate percep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at Yonsei University*, 2007.
- [2] J. E. Song, H. J. Chae,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4, pp.502-512, 2014.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4.20.4.502>
- [3] M. Pulido-Martos, J. M. Augusto-Landa, E. Lopez-Zafra, "Sources of stress in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studies",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Vol.59, No.1, pp.15-25, 2012  
DOI: <https://dx.doi.org/10.1111/j.1466-7657.2011.00939.x>
- [4] I. A. Shaban, W. A. Khater, L. M. Akhu-Zaheya,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stress sources and coping behaviours during their initial period of clinical training: A Jordanian perspective",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12, No.4, pp.204-209, 2012.  
DOI: <https://dx.doi.org/10.1016/j.nepr.2012.01.005>
- [5] J. Por, L. Barriball, J. Fitzpatrick, J. Roberts, "Emotional intelligence: Its relationship to stress, coping, well-being and professional performance in nursing students", *Nurse Education Today*, Vol.31, No.8, pp.855-860, 2011.  
DOI: <https://dx.doi.org/10.1016/j.nedt.2010.12.023>
- [6] S. Y. Yun, S. H. Min,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piritual well-being on College adjustment in major of Nursing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2, No.12, pp.395-403, 2014.  
DOI: <https://dx.doi.org/10.14400/JDC.2014.12.12.395>
- [7] H. S. Park, K. S. Jeong, "Influence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Creativity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9, No.4, pp.549-557, 2013.
- [8] H. T.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3, pp.1576-1583, 2014.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4.15.3.1576>
- [9] S. O. Choi, J. K. Park, S. H. Kim, "Factors Influencing the Adaptation to the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1, No.2, pp.182-189, 2015.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5.21.2.182>
- [10] M. L. Toews, A. Yazedjian,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Predictors for White and Hispanic Males and Females", *College Student Journal*, Vol.41, No.4, pp.891-900, 2007.
- [11] J. Y. Kim, "Factors associated with college life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of Nursing at Sungshin University*, 2015.
- [12] E. Jamelske, "Measuring the impact of a university first-year experience program on student GPA and retention", *Higher Education*, Vol.57, No.3, pp.373-391, 2009.  
DOI: <https://dx.doi.org/10.1007/s10734-008-9161-1>
- [13]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7-20, 2000.
- [14] D. Barron, E. West, R. Reeves,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Vol.12, No.1, pp.46-51, 2007.  
DOI: <https://dx.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 [15] J. M. Kim, H. W. Che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Interpersonal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Focus on Jeollabuk-do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Food Service Management-", *FoodService Industry Journal*, Vol.9, No.3, pp.81-92, 2013.  
DOI: <https://dx.doi.org/10.22509/kfsa.2013.9.3.007>
- [16] T. Wubbels, J. Levy, "A comparison of interpersonal behavior of Dutch and American teacher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15, No.1, pp.1-18, 1991.  
DOI: [https://dx.doi.org/10.1016/0147-1767\(91\)90070-W](https://dx.doi.org/10.1016/0147-1767(91)90070-W)
- [17] E. I. Jeong, Y. H. Park, "Relations among faculty trust, learning motivation, and school adjustment of college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9, No.1 pp.73-93, 2008.  
DOI: <https://dx.doi.org/10.15753/aje.2008.9.1.004>
- [18] J. W. Lee, Y. S. Eo,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2, pp.125-134, 2013.  
DOI: <https://dx.doi.org/10.12811/kshsm.2013.7.2.125>
- [19] W. S. Cho,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ccordance with major-interest correspondence of the university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Daejin University*, 2009.
- [20]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21] G. L. Fisher, "Comparing writing with interviews and exams as assessments of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derivative",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2001
- [22] E. L. Chi, S. S. Kim, "Comparing Elementary and Junior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20, No.2 pp.83-101, 2004.
- [23] S. Y. Han, "The effect of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physical self-efficacy and dance ability on achievement", *Department of Dance Graduate School at Dankook University*, 2010
- [24] R. W. Baker, B. Siryk,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os Angeles: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1989.
- [25] J. W. Hyun,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Graduate School at Yonsei University*, 1992.
- [26] H. J. Ka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Relation Disposition and College Life Adjustment",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9.
- [27] T. J. Jang, "The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leadership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at Keimyung University*, 2015.
- [28] K. M. Lim, H. Y. Kim, G. J. Park, "The Influenc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Mal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10, pp.423-431, 2017.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7.18.10.423>
- [29] H. M. Lee,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calling of undergraduate students", *Graduate School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7.
- [30] M. K. Cho, M. Y. Kim, "Effects of Learner Motivation and Teacher-student Interaction on Learne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468-477, 2017.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7.17.04.468>
- [31] D. H. Kwon, "The effects of faculty-student interaction and peer relations upon academic self-efficacy of university students",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at Sungkyunkwan University*, 2017.
- [32] B. K. Choi, "Estimating Change in Student-Faculty Interaction:Test of the Effects of Student Characteristics and Early College Experiences",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43, No.1, pp.185-208, 2016.
- [33] J. H. Oh,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0, pp.873-884, 2014.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4.14.10.873>
- [34] J. Choi, M. J. Park,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7, pp.339-349, 2013.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3.13.07.339>
- [35] K. H. Yang, J. R. Lee, B. N. Park,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5-13, 2012.  
DOI: <https://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 [36] S. H. Park, S. H. Han, "Effect of Self-resilience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Major satisfaction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8, pp.517-526,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8.517>
- [37] K. H. Kim, "Correlation of Stress - 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3, pp.301-313, 2014.  
DOI: <https://dx.doi.org/10.5392/JKCA.2014.14.03.301>
- [38] S. Sim, M. Ba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racter, interpersonal relations, and adjustment to a college lif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7, No.12, pp.634-642, 2016.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6.17.12.634>
- [39] I. Y. Cho,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5, pp.2937-2945, 2014.  
DOI: <https://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 [40] Y. J. Song, G. P. Cho,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Motiv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Education*, Vol.34, No.4, pp.61-77, 2016.  
DOI: <https://dx.doi.org/10.22327/kei.2016.34.4.061>
- [41] M. W. Nam, H. D. Lee, E. J. Baik,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f Influential Factors on Academic Dropout Intention of Local University Freshmen", *Soonchunhyang Journal of Humanities*, Vol.35, No.4, pp.147-174, 2016.
- [42] J. N. Do,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Dance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Dance*, Vol.75, No.6, pp.89-102, 2017.  
DOI: <https://dx.doi.org/10.21317/ksd.75.6.5>

임 경 민(kyoung-Min Lim)

[정회원]



- 2008년 9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석사)
- 2012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박사)
- 2018년 2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수료)
- 2015년 3월 : 춘해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017년 4월 ~ 현재 : 동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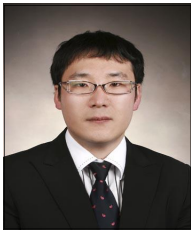
<관심분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학, 의료경영

---

박 정 훈(Jung-Hoon Park)

[정회원]



- 2011년 8월 : 고신대학교 대학원 보건과학과(보건학박사)
- 2001년 8월 ~ 2017년 3월 : 좋은강안병원 재무팀장
- 2018년 3월 ~ 현재 : 영산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관심분야>

병원회계, 병원재무관리, 병원경영분석